우주 천지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

☞ 21면에서 계속

을 받고 뼈를 받은 게 엄마 아빠에게서 몸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있는 거는,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은 댁네들이 예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면서 행해 온 행적이란 말입니다. 행적의 인연이야. 인연들이 모두 같이 이렇게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되맡겨 놓고 이전에, 과거에 거기서 내가 저지른 거니까 나로 인해서 인연이 된 그쪽에서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녹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병도 낫게 할 수밖에 없고 잘되게 하는 것도 거기요, 못되게 하는 것도 거기니 못되게 하는 것을 잘되게 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공부하셔서 다 아시겠죠? 나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시겠어요? 지구가 여러분을 모시고 어디로 돌고 있습디까? 지구를 벗어나야 그걸 알죠. 그렇듯이 내 몸에서도 내가 벗어나야 나를 맘대로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은하계에 별성들이 있듯이 이 몸속에 지금 하나하나 생명들이 돌고 있어요, 혹성을 위해서. 그래야 혹성이 움죽거리죠. 혹성이에요, 이게. 별성들이 있는 집합소죠,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걸, 내 주인공밖에는 믿을 곳이 없고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큰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해!' 하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낼 때에 거리낌 없이 들이고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화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탓이고. 안 되고 되는 것이 모두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지, 자기가 있는데. 만약에 언덕이 없거나 소가 없어도 소가 언덕에 비비지 않을 겁니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소가 가서 비비거든.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상대가 있는 거고 부딪치는 거고 또 잘못되는 일도 있고 잘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성,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왜 주인공이라고 그랬느냐. 이 우주 천지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그 사실. 그러니 내 주인공에 이 세상 우주 천지를 다 집어넣어도 결국은 그릇이 좁지 않다는 점. 다 내놔도 줄지 않는다는 점. 영, 영, 영, 영 수만 개를 써 놔도 영은 영이지, 그게 없단 말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허공이야, 다. 이 허공도 공했어, 전체가. 그런데 뭐가 어지러울 게 있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어디에 뭐가 놓여 있고 어디에는 뭐가 놓여 있고 그런 사실을 여기 앉아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면 그와 같이 어떠한 혹성이든 어떠한 별성이든 어디든, 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든 꽃의 마음이든 이걸 읽을 수가 있고 이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고등 동물이고 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기는커녕 만날 그냥 뜬구름처럼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면서 이 물바퀴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에 그냥 부딪치고 부딪치고 부딪치고 그러니까 항상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의사도 있고 관세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칠성도 있고 산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용신도 있고 거기 다, 약사도 있고 그 주인공 안에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겁니다. 또 일체 중생이 다 거기 있고, 일체 의사가 다 거기 있고 간호원도 있고 전부 있어요. 그런데 왜 딴 데 가서 찾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 약이 수두룩하고 보이지 않는 데 의사가 있고 아니, 별게 다 있는데, 가난하면 가난을 극복하고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관세음이 있고, 바로 그 주인공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왜 따로따로 찾습니까?

그림을 보고 찾고 그림을 보고 믿고 말을 듣고 믿고 또는 이름을 보고 찾고, 칠성에 가서 빌어야 명이 길고 약사한테 빌어야 병이 낫고 또 좋은 데로 가려면 지장을 찾아야 하고, 명이 길려면 칠성에 가서 빌어야 하고 또는 무슨 사건이 나면 산신에 가서 빌어야 하고 어린애를 못 낳아도 산신에 가서 빌어야 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만물의 영장이기 이전에 귀신들이지, 그게 사람이 귀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거지 사람이 귀신 노릇을 안 하고 사람 노릇을 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오실 때 넘어지면 여러분이 일어나지 누가 일으켜 줍디까? 그리고 대신 먹어 줍디까, 대신 아파 줍디까, 대신 죽어 줍디까, 대신 자 줍디까, 대신 똥 눠 줍디까? 아니, 대신 누가 해 줍디까?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 왔다가 가을이 되면 혼자 낙엽 떨어지듯이 갑니다. 그랬다 다시금 이 세상에 나올 땐 봄이 와야 다시 잎이 피듯이 잠시 중지됐다가 또 나오거든.

그런데 잠시 중지가 아니라, 의식에 끄달리고 물질에 끄달리던 의식이 그냥 남아서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자기가 갈 바를 몰라. 그래서 저런 나무한테도 지접을 하고 또는 어디 집 짓는 데 가서 지접을 하고 대감도 되고 거기 그냥 어떤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기복으로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 집으로 들어가고 저 집으로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지. 이래도 그렇게 기복으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집이 빈집과 같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자.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자면서 거기서 그저 집이 헐어지건 말건 들어와서 그냥 북덕거리고 있다가 또 나고, 또 북덕거리고 있다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 그냥 얼른 망그러지지. 그런 셈이나 같아, 이 몸뚱이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소가 가서 비비듯이
내가 있기에 상대가 있는 거고 부딪치는 것이며
잘되는 일도 있고 잘못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성,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즉 말하자면 의식 자체가 딴 데서 들어오는 유전성이나 세균이나 이런 것도 여기 주인이 없어 가지고 뭐, 다스리지 않으니까, 즉 부모가 없어 가지고 고아들이 한데 모여서 저희들끼리 북덕거리는 거와 똑같아요. 지배인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는 바깥에 있는 거 다 끌어들여서 서로 춤을 추니 이 몸뚱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몸뚱이가 집과 같은데.

그러니 여러분이 '저이는 뭐, 말만 했다 하면 항상 저렇게 말이 많은데 저 말이 어디서 저렇게 나오나?' 이러겠지만 이게 진리라, 전부. 내가 없는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첨단을 넘어가는 공부들을 하신 분들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찰나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한 바가 없이 그냥 자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아, 이걸 왜 몰라요? 그러니 거기 업이나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거 붙을 사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도리를 알아야죠.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얕보여서 주먹으로 한 대 맞는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아주 너그럽고 저 사람은 참 사람다운 사람이다 할 때는 거기 손 못 댑니다. 그러나 덤벙덤벙하고 그저 사기나 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주먹 아니라 발길에 차이고 그냥 모가지도 눌리고 그런다고.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주인 없이, 주모가 없이 내가 흔들린다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사방에서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 그러니 될 듯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 그게 과다 이거야. 인으로 인해서, 내가 나오기 이전의 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상에서 과로 뭉쳐 있다.

이걸 다 녹이려면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다 놔야 그것이, 전자의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이 다 녹아서 마음이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져서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보살로 화한다 이거지. 그럼으로써 내 이 혹성 하나에 '나'가, 보살들이 수호하고 다니죠. 보호하고 다니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강도가 온다 하더라도 강도가 칼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그 수호신이 수호하고 다니죠. 그래서 보신 화신 수호신, 그 모두가 나한테 있어서 천백억화신이 보호하고 다니다가 내가 한생각을 냈다 하면 그냥 한 찰나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즉 말하자면 법설을 하시곤 그냥 한 찰나에 나시는 거라. 그러니 어느 국토에, 즉 말하자면 어느 혹성에도 나 아닌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집 아님이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태양이 타 버리면 지구도 집어삼킬 수 있고, 또 팽창되면 집어삼킬 수도 있고, 타 버리면 다 타 버리고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럽디다만 우주의 모든 물질, 형성된 모든 별성,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나 하나 별 하나 이러듯이, 내 몸 하나 그 혹성 하나 이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너무 팽창되면 조절할 수 있고 또는 타 버리게 되면 타 버리지 않게 조절할 수 있고 항상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영원히, 이것이 모든 게 돌아가면서 나 아님이 없이 될 수 있어야 둘 아닌 도리를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글쎄, 조주 화두를 나한테 묻다니, 자기가 공했다는데 조주 화두가 어디 있어, 음? 자기가 공해서 없는데 조주 화두가 어디 있느냐고? 만약에 이게 조주 화두라면 고정되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 때에 따라서는 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덮기도 하는 게 이게 바로 찰나 생활이야. 여러분이 학술로다가 다 읽고 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물질만이 문을 찾고 물질만이 문을 찾아 들어오려고 하지 체가 없는 마음이 무슨 문을 찾고 무슨 문을 찾아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금방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금방 여기에서 거기에 알맞은, 몸이 아파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금방 자기 속에서 약사가 그리로 그냥 통신하면서, 바로 광력이 빛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그 몸으로다 찰나에 들어가서 찰나에 해결하고 찰나에 나. 이러한 도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물 한 그릇을 이렇게 먹어야 할 때 우주 천체가 먹고도 이 물 한 그릇이 되남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또 남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먹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물질로서만 촛불을 켜 놓고 향을 피워 놓고 위패를 써 놓고 하기보다도 내 마음의 향을 피우고 내 마음의 촛불을 켜고, 그것이 인등이거든. 그걸 켜 놓고서 가만히 그 은공을 갚는 마음, 그 은혜를 갚는 마음,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관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로는 바로 묵은 빚을 갚는 일입니다. 또 아래로 햇빛을 주려면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이 아래로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모두가 다 그렇죠.

몸으로, 위로는 모시고 아래로는 이 육신 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을 제도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바깥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있죠. 그런데 육의 부모나 법의 부모나, 부처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둘이 아닌 겁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둘로 보지 마세요, 그것도. 왜 구차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얼기설기해 놓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고달프게 삽니까? '주인공' 하면 그 안에 부처도 중생도 또는 육의 부모의 조상도 다 같이 응하고 계신데.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2월 16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끼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